

【논문】

## 최한기를 읽기 위한 제언\*

—근대성과 과학의 관점에서—

김 선 희

【주제분류】 한국철학

【주요어】 최한기, 서학, 서양과학, 기학, 기측체의, 보편학, 경험주의

【요약문】 동아시아에서 서양을 통해 촉발된 근대 지식은 독립적이고 일관된 형태로 이식될 수 없다. 서양의 학술은 고유한 체계와 가치와 이념이 이미 작동하고 있던 지식장에 들어온 외래 사유였고, 따라서 본래의 맥락에서 분리되어 고유의 담론 체계 안에서 다른 생명력과 가치를 얻을 수밖에 없다. 서학(Western Learning) 특히 서양 과학에 대한 최한기의 접근과 수용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최한기 연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평가들을 하나의 표제어로 삼아 최한기 철학에 접근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서학과 관련된 최한기의 사상적 구상을 재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최한기는 총론 차원에서는 동서양을 회통시키며 시대를 앞서 나간 선구적인 사상가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각론 차원에서는 서양 과학의 맥락과 발전상을 이해할 지적(知的) 자원이나 훈련 없이 단발적이고 개별적인 정보 나열에 그친 실패한 사상가로 평가받기도 한다. 총론과 각론의 극단 사이에서 최한기는 ‘근대 우주관을 수용한 과학사상가’나 ‘철두철미한 경험주의자’ 또는 ‘이형집합의 키메라’로 인식된다. 그러나 조선 유학의 토대에서 성장한 최한기는 자신이 수용한 학적 체계가 서양의 ‘근대 과학’이라는 것도, 그 사상적 자원의 내적 발전이 ‘근대성’의 차원에서 평가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또한 그가 강조한 ‘경험’이라는 관념 안에는 경험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실재에 대한 이념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근대 세계에 대한 의식적 지향이 없었던 최한기에게 ‘근대성’의 표지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1-AL0015)

를 붙여 평가하거나, 서양 과학의 완전한 이해와 수용을 목표로 하지 않았던 최한기에 대해 서양 과학의 이해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최한기의 전략과 목표, 구상과 기획을 현대적 관점에서 예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한기의 철학적 구상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왜 그가 서양 과학을 도입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다양한 서양 과학을 수용하고자 했던 최한기의 시도는 ‘기학(氣學)’이라는 보편학에 대한 그의 구상과 지향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그는 기학을 통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고자 했고 이 세계관의 하위에 체계적 학문의 분과를 구성하고자 했다. 그는 기학이라는 보편학의 실질적 세부를 만들기 위해 서양 과학 이론을 비롯한 자기 시대의 모든 사상적 자원을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학론에 대한 평가는 그가 목표로 했던 체계와 그 체계의 세부를 구성하는 사상적 자원들 사이의 연동과 논리 안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I. 들어가며\_최한기에 대한 시선

현재 최한기(惠崗 崔漢綺, 1803-1877)에 대한 연구는 『기학』, 『인정』 등 주저(主著)의 분석을 통한 총론적 평가 수준을 넘어서서, 최한기가 활용한 서학서들을 직접 대조하는 학론의 수준으로 확장되어 있다.<sup>1)</sup> 이 연구들에 나타난 최한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듯 보이지만 생각보다 단순하다. 서양 과학을 진취적으로 흡수했다는 사실과 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을 구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의 모험적인 시도는 마지막 전근대 사상가의 거

- 1) 최근 서학과의 비교 작업을 통해 최한기를 읽어나가려는 시도가 확대 심화되고 있다. 『지구전요』에 나타난 지리사상, 『신기천험』의 서구의학 수용, 『운회축협』과 『공제적치』의 비교, 『영언여작』의 영향과 토마스 아퀴나스 인식론과의 비교 등이 연구된 바 있다. 김문용, 「서양 의학의 수용과 신체관의 변화 - 최한기의 『身機踐驗』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Vol. 37, 2009., 김숙경, 『惠岡 崔漢綺의 氣學에 나타난 西學 受容과 變容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노혜정, 『지구전요에 나타난 최한기의 지리사상』, 한국학술정보, 2005., 여인석, 노재훈 「최한기의 의학사상」 『의사학』 제2집 1993., 안상우, 권오민, 이준규 「崔漢綺의 『身機踐驗』을 읽는 또 하나의 독법-거시담론과 미시담론의 틈새로 보기」 『동양한문학연구』 29집 2009., 전용훈,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서양과학 읽기 - 최한기의 기학과 서양과학」 『역사비평』 Vol.81, 2007. 등을 들 수 있다.

대한 철학적 기획으로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상찬 받는다. 이에 비해 그가 수용한 서양 과학의 관점에서 최한기의 사상은 생각보다 조야하고 비정합적 이해에 불과하며 (자기 체계에 따라 취사선택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압박한 나열에 그칠 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총론 차원에서는 동서양을 회통시키며 시대를 앞서 나간 선구적인 사상가로 인정받지만, 각론 차원에서는 서양 과학의 세부들을 충분히 이해할 지적(知的) 자원이나 훈련 없이 오직 자기의 이해 수준에서만 서양 학설들을 취사선택함으로써, 단발적이고 개별적인 정보 나열에 그친 실패한 사상가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 ‘총론의 기대’와 ‘각론의 실망’ 두 입장 사이의 괴리가 어찌면 19세기-20세기 한국의 지식장이 놓여있는 위상에 대한 일반적 평가가 아닐까.

그의 세계관은 전통적인 유가의 이념을 벗어나지 않는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우주가 하나의 축에서 움직이고, 이를 관통하는 운동성이자 생명성으로서의 기(氣)가 이 연동을 보장하며, 이 연동 안에 선한 가치가 영원히 작동한다. 개인은 개체에 머물지 않으며 우주로까지 자아를 확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이 확장의 실현은 일단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최한기는 전통적인 유학자나 성리학자와는 다른 구도와 개념 위에 자신의 철학을 세우고자 한다. 가치는 우주의 근원에서 인간의 마음에 직통으로 내재하지 않으며, 지식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추측(推測)이라는 신기(神氣-마음)의 작용에 의한 결과물이며 우주적 영원성의 가치는 내 삶에 곧바로 내면화되어 있지 않다. 그는 전통적 의미의 리를 부정하며, 오직 기의 구조와 운동과 변화로만 세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가 기로만 이루어진 세계를 꿈꾸었다고 해서 가치가 완전히 배제된 서구 근대적 자연개념으로 세계를 이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여전히 유학적 세계관 안에서 유가적 이념을 자신의 학문으로 재천명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는 왜 19세기 조선의 상황에서 기학이라는 독특한 자기만의 학문 체계를 구상했고 그 안에 이질적인 서양의 과학 이론들을 도입했는가? 당연해 보이는 이 질문을 다시 구성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어찌면 근대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최한기를 독해하는

경로가 될 것이다. 이 질문에 접근하기 전 예비적 경로가 제안될 수 있다. 이제까지 최한기를 설명해왔던 근대성, 경험주의, 서양 과학 등의 표제어로 부터 다시 검토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대 지식의 관점에서 19세기 조선의 지식장을 조망할 통로가 확보될 수도 있을 것이다.

## II. ‘근대 우주관을 수용한 과학사상가, 최한기’

최한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동설 즉 태양중심설을 수용하는 동시에 최초로 뉴턴의 만유인력이 법칙을 받아들인 선진적인 과학사상가였다. 태양중심설 및 만유인력의 법칙은 서양의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점이다.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이 근대 우주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곧 근대 우주관의 완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한기는 조선에 있어 서양의 근대 우주관의 수용자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의 신체를 하나의 기계로 이해하는 서양 근대의 기계론적 신체관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자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펼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주설로 대표되는 서양 근대 과학의 영향이 있었고, 그러한 만큼 그 새로운 사고는 서양의 근대적 사고에 근접했으리라는 점이다.<sup>2)</sup>

최한기에 관한 어느 논문의 결론 부분이다. 최한기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연구자들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일 것이다. ‘선진적인 과학사상가’라거나 ‘독보적인 학문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는 최한기를 다루는 논문에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관용적 문구다. 최한기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성리학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실학성을, 서구 과학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과학성을 담보하면서 이를 회통하려는 선구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과연 이런 식의 평가가 정당하거나 설득력 있는가? 최한기는 놀

2) 김용현, 「주자학적 학문관의 해체와 실학-최한기의 탈주자학적 학문관을 중심으로」, 『해강 최한기』, 예문서원, 2005. 192쪽.

라운 열정으로 서학 과학서들을 구해 보았고 압박하다 할 정도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흡수했다. 그는 당대 중국에서 이루어진 서양 과학의 쇄도를 기뻐했고 그 성과를 자기 학문 체계 안에 수용하고자 노력했다. 그가 수용한 이론 가운데는 위의 인용처럼 당시로서는 최신 이론인 뉴턴의 역학이나 해부학은 물론 부인과나 소아과 지식까지 담고 있던 최신 의학 이론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위의 평가를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일단 최한기는 자연의 법칙[物理]만을 객관적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과학자나 과학사상가로 분류되기 어렵다. 그는 언제나 개인, 사회, 국가, 역사, 우주를 총괄하고 포괄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세계관을 자신의 학문적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설명하거나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서학의 과학 이론들이나 기술에 대한 설명을 차용했지만 결국 이러한 이론과 정보들은 최한기가 열성적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자신의 학적 체계 즉 ‘기학(氣學)’의 체계 내에서 분과적 학문으로 개별화되거나 독립적 영역을 갖지 않는다. 더 중요한 문제는 최한기가 근대 우주관이 담긴 서양 과학 이론을 읽고 자기 책에서 다루었다고 해서 과연 그를 ‘서양의 근대 우주관의 수용자’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의 학문에 서양 과학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새로운 사고가 근대적 사고에 근접했으리라고 볼 분명한 근거가 존재하는가?

최한기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기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고 기계론적 신체관이 더욱 진보된 ‘근대적’인 입장이라는 자의식 역시 없었다. 그는 자기가 구성한 기학이라는 체계에 자기 방식의 논리와 의미로 서양 과학 이론들을 배치해 넣었을 뿐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질문은 ‘과연 그가 중세의 과학 이론보다 더욱 최신의 서구 근대적 우주관과 신체관에 접근함으로써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했는가?’ 라는 쪽에 가까울 것이다. 뉴턴의 역학과 흡슨의 의학설이 중세의 우주론이나 신체관보다 더욱 발전된 ‘근대적’ 이론이라는 사실이 과연 최한기에게 의미가 있었을까? 최한기는 더욱 ‘근대적’인 학술을 수용하고자 했던 것일까?

이런 의문들은 그를 단순히 서구 근대 우주관의 수용자나 근대적 사고에

접근한 과학 사상가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하도록 이끈다. 최한기에 대한 평가에 이렇게 일종의 긴장과 주저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토대는 그가 받아들인 과학 이론의 위상과 의미에 대한 서구적 평가를 그 맥락 그대로 최한기에 그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근대 지식의 관점에서 최한기의 학술적 시도와 모험을 평가하기 위해 거쳐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

이런 긴장과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19세기-20세기 전환기 한국에서 이루어진 서구 근대 지식의 수용과 변용의 과정을 조망한다면 모든 평가는 전달된 서양 지식들이 얼마나 온전히 제 모습을 유지한 채 한국적 맥락에 수용되었는지, 한국의 지적 주체들은 얼마나 서양 지식을 손상 없이 이해하고 수용했는지의 정오 판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인용문은 어떤 논점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최한기 사상을 근대지식의 관점에서 독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출발점 역할을 할 것이다.

최한기에 대한 평가는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자의 또는 타의로 전통 지식을 폐기하고 서양 학술과 담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다음 세대 지식인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범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한기의 경우는 ‘근대 이후 몰릴 듯 밀려들어온 서양 학술 체계를 어떻게 수용하고 번역하고 접맥했는가’라는 문제를 이해의 수준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여러 관점과 시각을 도입해 다면화하고 다층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시 말해 전환기 한국의 지식장 안에서 벌어진 근대 지식의 수용과 변용을 개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이다.

### III. ‘이형접합의 키메라, 최한기’

최한기는 실험, 검증, 수학과 같은 과학적 실천을 결합한 채 서양 과학을 서적에 표기된 문자적 지식으로만 학습했다. 과학적 실천의 부재는 자유로운 사유와 상상을 통해 서양 과학 지식을 자신의 기학적 체계 속으로 변용해 들여오도록 했지만 반면에 서양 과학 자체의 본질적 이해로부터는 더욱 멀어지게 했다. 그리하여 최한기가 서양과학을 통하여 혹은 서양과학을 토대

로 구성된 사유의 결과는 한 번도 실천적으로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못한 채 문자적 언설로만 남게 되었다.<sup>3)</sup>

이 논문에서 최한기는 ‘서양과학사가 경험한 근대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어내지 못했다’<sup>4)</sup>고 평가된다. 과연 최한기에게 적절하거나 타당한 평가인가? 최한기는 자신의 저서 『성기운화』에 활용한 서학서 『공제격치』가 당대에는 이미 폐기된 중세적 기상학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때문에 한계를 지적받기도 하고, 뉴턴 역학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기가 물체의 주위를 원형으로 감싼다는 기륜설로 해석해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려 함으로써 ‘서양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자의적 변용 위에서 이형접합의 키메라’와 같은 체계를 만들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sup>5)</sup> 이런 평가는 그가 수용하고 변용한 서양 과학의 관점에서 최한기를 보려는 연구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가 유학과 서양 과학을 종합하고 회통시켰다는 총론 차원의 상찬이 여전히 시효가 끝나지 않은 반면, 그가 참고한 서학서를 바탕으로 개별 과학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각론 차원에서의 날카로운 비판과 실망은 이제 하나의 일반론이 되었다.<sup>6)</sup>

잘 알려진 대로 그는 서양 과학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자기 이론의 실질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했다.<sup>7)</sup> 그러나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듯 최한기가 접한 서양 과학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식이 아니었으며, 예수회가 전달한 중세 천문학과 수학부터 19세기 최신의 뉴턴 역학과 천문학, 의학, 화학에 이르기까지 각기 연원과 배경이 달리 하는 이질적인 정보들이었다. 서로 다른 시대의 담론들은 그 내부에 다양한 개념적 긴장과 모순이 뒤엉켜 있었지만 오직 중국을 통해 구한 책을 통해서 서양 과학을 접한 최한기가 이 이론들

3) 전용훈, 앞의 논문, 270쪽.

4) 전용훈, 앞의 논문, 251쪽.

5) 전용훈, 앞의 논문, 268쪽.

6) 영국 선교의 흡슨의 의학서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최한기의 의학 관련 저술 『신기천험』 등을 분석한 연구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논조로 최한기의 서양 과학 이해 수준이 낮으며 원의에서 벗어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여인석 외, 앞의 논문., 안상우 외, 앞의 논문.

7) 예를 들어 그는 기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작용을 통해 모든 천문학적 현상과 인간사까지 규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에 우연적이고 산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최한기의 이러한 전략과 구상은 중국의 교상관석(敎相判釋) 과정을 연상하게 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이론적 토론 과정이라는 역사적 경로를 거쳐 이루어진 인도의 불경 형성 과정과 달리, 서로 다른 문제의식과 상호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던 여러 시대의 불경을 한꺼번에 넘겨받아 자신들의 문제의식과 관점에 따라 경전을 정리했던 중국 불교의 교상관석의 과정처럼, 최한기 역시 자신의 관점과 문제의식에 따라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정보를 분류하고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구축한 자기 체계 안에 오직 자신만의 기준과 규칙에 따라 배치해 넣었던 것이다. 물론 최한기 역시 서양 과학자들이 서로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에 구한 책을 통해 이전의 미진했던 이론들이 다시 해석되는 경험을 했고, 서학서 하나하나가 완벽한 지식 체계 혹은 완결된 지식 체계를 담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이해했다.<sup>8)</sup> 이것이 그가 집을 줄여 나가고 남들에게 벽(癖)이 있다는 놀림을 들어가면서 까지 그토록 열정적으로 새로운 서학서들을 구해보려고 한 이유일 것이다.<sup>9)</sup> 그렇다면 그의 선택적 배치와 독자적

8) 『氣測體義』, 『明南樓隨錄』 ‘단지 전에 얻은 서적만 보면 비록 부족한 데가 없더라도, 뒤에 얻은 서적을 보게 되면 전에 본 서적에 미진한 데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대개 한 사람의 의사로 침입해 넣은 탓에 있으니 후세 사람의 경험(經驗)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래지 않아 그 글이 버려지게 되니, 이것은 실로 저술하는 사람이 깊이 경계할 일이고 또한 후세 사람이 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구하는 데에 방도를 가리지 않고 찾는 데에 힘을 다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그 공효가 없지 않다. 바라건대,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함께 천하 대동의 규모를 널리 개척하여 인간의 치평에 관한 계책을 세워, 서로의 시비를 남기지 말고 포양(褒揚)하고 권면하는 일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但見前所得之書, 雖若無欠, 及見後所得之書, 乃知前書有未盡. 多在於一己意思添入, 不顧慮於後世人之經驗, 以致未久廢棄, 是實著書者深戒, 亦爲後人之恨歎. 然在於求之無方, 探之用極之道, 不無其效, 願與同志之人, 恢撫宇內大同之規模, 樹立人間治平之謨猷, 勿留互相是非, 俾存褒揚勸勉)’

9) 『氣測體義』, 『明南樓隨錄』 ‘이전 서적이 기화(氣化)에 미진한 것을 뒤의 서적이 더 밝혔고, 뒤의 서적이 더 밝히지 못한 것을 지금의 서적이 다시 더 밝혔다. 지금 서적을 갈구하는 사정이 이전 서적을 구해 보려는 마음보다 배가 되는 것은 그 반쪽 모습만 보고 나머지 반쪽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서적을 탐구(貪求)하는 벽(性癖)이라고 여기나, 나를 아는 사람은 협력해서 구해 보여주기를 마지않을 것이다. (前書籍之未盡氣化, 後書籍加明之, 後書籍之未盡明, 今書籍更加明之. 今書籍渴求之情, 有倍於前書籍求見之心, 爲其半形之見, 而半形之未見也. 不知我者, 以貪求書籍爲癖, 知我者, 協力求見, 有不能自止焉)’



이해를 서학서들 내부의 이론적 변화를 일종의 시간적 발전의 결과로 판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실패’와 ‘오독’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양 과학의 이론적 축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론의 교체와 그 결과로서의 최신 이론을 더 종합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구축한 체계에 도입하고 배치할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양에서 당대에 이루어진 근대적 패러다임의 변화, 다시 말해 서양 근대 과학사 안에서 이루어진 시간적 경과에 따른 과학적 ‘발전’이 최한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서양 과학사의 ‘발전’과 이론적 ‘진보’는 그 내부의 규칙이 일관되게 작동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내적 맥락의 변화일 뿐, 다른 각도 다른 이념에서 접근하는 외부자의 시선에서 그 변화를 일종의 질적 ‘발전’으로 평가할 명분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과학혁명을 거친 19세기 과학 담론의 수준에서 17세기 예수회 회원들의 천문학과 기상학은 용도 폐기될 수준의 전근대적 미신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자기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찾는 외부자의 시선에는 나름의 가치와 의의가 있는, 여전히 이용가치를 가진 개별적인 사상적 자원일 수 있다. 이질적인 인도 불교의 내용들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대 구분을 무시하고 나름의 경전 체계를 구축했던 중국 불교를, 인도 불교에 대한 오독으로 탄생한 괴물로 평가하지 않듯, 최한기의 문제의식과 목적을 이해하는 한에서 서양 과학에 대한 그의 접근 역시 얼마나 실제와 유사하게 혹은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평가의 척도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일종의 근대 지식으로서의 최한기의 사상적 시도에 대한 평가는 이질적인 자원들을 어떤 기준과 가치에 의해 수용할 것인가의 전라과 지향에 대한 것이어야 자원들의 화학적 결합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닐 것이다. 화학적 결합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현재 우리의 눈이기 때문이다.

최한기는 서양 과학 자체를 소개하거나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목표가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이 구축한 기학이라는 학문의 세부와 분절을 채우기 위해 각론의 차원에서 서양 과학의 이론들을 본래의 맥락에서 떼어내 분해하거나 해체해서 자기 이론의 맥락에 짜깁기해 넣었을 것이다. 과학 혁명이

라는 과학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대한 정보도 자각도 없었던 최한기에게 예수회가 전한 중세 과학과 19세기 당대의 최신 이론이었던 뉴턴 역학은 자기 맥락 안에 도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동일한 수준의 개별 인자에 불과했다. 최한기의 서양 과학 이해는 일차적으로 그의 의도와 목적 하에서, 다시 말해 원래의 과학적 맥락이 아니라 최한기 체계 내의 맥락과 논리에서 평가해야 한다.

과학적 정합성이 그 정합성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성립하는 개념이라면 최한기의 우주론은 분명 모종의 과학적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서양 과학을 정합적 체계로 수용한 적이 없었고 서양 과학 이론들을 정합적 체계 안에 배치할 의도가 없었다. 이해할 능력이 없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합성을 목표로 하는 이해 방식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필요한 개념과 이론을 자기 맥락에 맞게 고쳐 썼고, 자기 기학 체계의 내부 규칙에 어긋나는 정보들은 무시하거나 거부했다. 그에겐 ‘기학(氣學)’이라는, 각론을 규준하고 판가름할 상위 학문, 메타 담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이론들은 상위의 체계에 하나의 분기나 맥락으로서만 정합성을 지닐 뿐이다.

최한기의 각론에 대한 이런 식의 실망은 서양의 근대 과학 담론을 그 자체로 완결적이고 독립적이며 오직 그 맥락에서만 판단해야 할 순수한 이론 체계로 이해한 결과는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 이론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론 체계로서 과학적 맥락 밖의 그 어떤 것도 개입시켜서는 안 되는 순수한 형태로 고집하지 않는다면, 최한기의 시도를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IV. ‘경험주의자, 최한기’

지금까지 최한기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표제어는 ‘경험주의’였다. 북한학계에서 먼저 조명받은 최한기를 남한학계에 이식한 박종홍이 「최한기의 경험주의」에서 그를 ‘철두철미한 경험론자’로 규정하면서 로크 등 영국

경험론자와 비교한 이래, 경험주의는 최한기를 규제적으로 파악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혹은 최한기의 사상을 묘사하는 하나의 술어로 오랫동안 여러 연구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최한기의 저작들이 국역되고 그에 따라 관련 논문이 상당한 양으로 축적되고 나서야 최한기와 경험주의가 일종의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sup>10)</sup> 그의 철학을 ‘철두철미한 경험주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연구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의 철학이 그다지 철저한 경험주의는 아니었으며 형이상학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가 과연 최한기 철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를 경험주의자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그를 근대적인 사상가로 볼 것인가와 유사한 질문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만약 그는 철저한 경험주의자는 아니었으며 여전히 형이상학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답변이라면 이는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대답이 ‘과학’이라는 개념에서 그를 분리시키고 여전히 형이상학에서 벗어나지 않은(못한) 증세적 사상가라는 평가와 연결시키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는 최한기에 대한 적절하거나 정당한 평가일까? 확실히 최한기는 경험이라는 개념을 사물과 자연이 인간의 감각기관에 기록되는 수동적 활동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영국 경험론의 입장과 다를 뿐 아니라<sup>11)</sup> 형이상학의 문제에서 현대 경험주의와 다르다. 일단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관점 위에서 과학적 지식을 인정한다.

1) 과학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은 논리학과 수학의 형식적 개념들이 아닌 한 경험적 개념들 즉 모든 구체적인 경우에 오직 관찰의 도움으로 그것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개념들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개념들은 사이비 개념이며 과학으로부터 배제된다. 2)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명제들은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증명가능하든가 경험적으로 확증되는 것이어야 한다.<sup>12)</sup>

10) 김용옥이나 박희병 같은 연구자가 이러한 경향을 대표한다.

11) 신기의 추측으로서의 경험은 주체를 변형시키고 문화기의 차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감각 지각의 수동적 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12) 볼프강 스테그렐러 『현대 경험주의와 분석철학』 이초식 외 역,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31쪽

이런 입장에 따르면 당연히 칸트의 시도도 실패로 간주되며<sup>13)</sup> 형이상학적 시도 자체가 문제된다. ‘현대 경험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형이상학적 철학은 그의 명제들이 객관적 검사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개념들에 대한 전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sup>14)</sup> 이런 맥락에서 경험주의적 입장에서는 과학과 예술, 종교의 명료한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통상적인 형이상학적 논제는 기껏해야 과학적으로 대치가 가능한 사유를 부분적으로 포함할 뿐이다. 그러한 지술들은 반은 시적이고 반은 종교적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론적인 내용을 잃어버린 채 단순히 감정을 표현할 뿐이며 근본적으로 미흡한 것이 되어 버렸다. 그들의 피상적인 개념 표현 방식과 표면상의 논증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생활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경험주의자들은 철학에서 체험(Erleben)과 인식(Erkennen)의 분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철학자는 형이상학에 나타난 개념들을 가지고 그의 이론을 구성하거나 묘사하거나 기원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sup>15)</sup>

이런 견해에 따르면 가장 먼저 붓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최한기일지도 모른다. 최한기에게서 인식 주체로서의 신기(神氣)의 체험은 인식과 구별되지 않으며 공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모종의 형이상학적 실체로서의 운화기에 대한 그의 논증은 수사적 표현 안에 묶여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한기는 모든 기는 유행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형태와 양과 에너지를 가진 개별적 존재이거나 물질 단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곳에 그리고 우주 그 자체의 본질로 ‘실재’한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그가

13) ‘경험 과학이 형이상학적 전제들의 체계’라는 한정된 의미 안에서 형이상학을 구출하려는 칸트의 시도에 대하여 현대 경험주의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칸트의 탐구는 선형적-종합적 지식이 존재한다는 명제의 의존한다. 이런 지식의 존재 가정은 경험주의에 의해 부인된다. 그러므로 칸트적인 문제 설정에 반대하는 경험주의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개괄될 수 있다. “선형적 종합 명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칸트적인 이성비판의 핵심 문제-왜 그런 문제가 존재하며 그들의 타당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공허하게 된다.’ 볼프강 스테그퀼러, 앞의 책, 32쪽

14) 볼프강 스테그퀼러, 앞의 책, 35쪽

15) 볼프강 스테그퀼러, 앞의 책, 37쪽

‘유형’이라고 썼다 해서 이를 곧이곧대로 형체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운동하고 변화하는 몸(일신운화)과 운동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제도적 실천들(통민운화)을 넘어서 운동하고 변화하는 우주(대기운화)를 말하고 이를 운화기라고 명명하는 순간 최한기가 구상한 학문적 틀로서의 ‘기학’은 경험과 유형의 세계를 넘어서 이념의 형이상학적 차원으로 월경한다.

물론 그가 경험을 강조하면서도 형이상학적 체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해서 철학적 이론 구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현대 경험주의자들에게 최한기의 철학적 구상을 해체시키거나 무화시킬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철학자들의 눈에 여전히 시적(詩的)이며, 여전히 종교적일지라도 나름의 철학적 가치와 권위로 자기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많은 철학적 분과와 연구 경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입장은 최한기의 지적 경향이 서로 합치시키기 어려운 어떤 이질적 요소나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모종의 비일관성 또는 이론적 착종성은 최한기가 사용한 ‘경험’이나 ‘실용’이라는 표현을 곧바로 현대의 연구 경향이나 현대적 개념에 포개놓은 채 그 분광기를 다시 최한기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긴장은 그의 철학 안에 존재하는 과학적 측면과 형이상학적 측면을 어떻게 연결하고 관계 맺도록 설명하는가가 한쪽의 일방적인 편견이나 낙관적 기대에서 벗어나 그의 사상을 의미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첫 번째 전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연과 인간 혹은 사실과 가치의 미분화는 동아시아 사유의 낙후성과 자생적 발전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이해되어 왔다. 근대 과학은 이 둘을 분리함으로써 탈주술적 해방을 이루었다고 인정받아 왔다. 근대 과학은 양자를 통합적으로 사유하고 설명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형이상학이 배제되고 개인의 실존적 상황과 가치는 부정되었다. 이 “비과학적” 관념과 언어들은 과학이 ‘아니’라는 변별적 표현이 아니라 과학이 되지 ‘못했’다는(非) 의미에서 열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최한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과학과 형이상학의 관계가 하나의 중요한 철학적 문제일 수 있음을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과학주의’로 명명된 현대의 과학적 흐름이 만들어낸 폭류를 동양의 전일적 세계

관이 치유해줄 수 있다는 식의 순진하고 낭만적인 발상에서가 아니라, 실존적 개인과 근원적 세계에 대한 통찰을 담은 형이상학이 여전히 철학의 영역인 한에서 현대의 과학주의가 배제한 철학적 원리들을 어떻게 과학적 전통과 소통시키고 대화하도록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철학의 고유한 역할이자 의무일 것이다. 형이상학이 배제될 때, 인간적 가치가 배제될 때 결국 수학적으로 계량될 수 없고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영역으로서의 철학이 배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기 때문이다.

## V. 최한기를 조망하는 각도: 보편학의 기획과 서양 과학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한기 연구에 적용된 분과적 관점과 문제의식들은 최한기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했다. 최한기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는 과정은 조선 후기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이른바 (근대)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맥락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 역할을 해왔다. 앞에서 검토한 최한기의 표제어가 최한기의 사상에 관한 우리의 시야를 막거나 제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도리어 저런 표제어들을 통해 최한기가 조명되고 부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표제어에 최한기를 가두지 않을 수 있는 관점과 문제의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학술적 긴장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다.

이 학술적 긴장에 접근하기 위한 전제적 시도로 하나의 질문을 가설할 수 있다. “최한기는 왜 서양과학으로 향했는가?” 현대의 관점에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그의 서양 과학 수용을 이해 여부, 성공 여부를 뛰어 넘어 그의 학문적 구상과 그 전략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평가해보는 것이다.

조선 유학의 풍토에서 서양 과학을 중요한 지식 체계로 받아들였던 것은 최한기만이 아니다. 연구자들 사이에 평가가 갈리기는 하지만 무한 우주설에 근접하면서 서양 천문학의 종동천을 태극의 관념으로 대체하고 두 천문

학 체계를 통섭하고자 했던 김석문의 시도를 비롯해, 지구설에 근접한 성호 이익과 홍대용 같은 전 세대 학자들도 서구 과학을 조선이 참고하고 활용할 만한 중요한 지적 통로로 인식했다. 유학자로서 세계의 실질적 운행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 이론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 특히 제왕의 학문이었던 천문역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백성들에 대한 정치적 사명감과 양적으로 비례한다. 그렇다면 이들과 최한기는 어떻게 다른가?

최한기가 서구 근대 과학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학서들을 폭넓게 접했고 이를 바탕으로 저술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규명된 바이다. 그의 저술은 천문학, 수학, 의학, 화학, 광학, 물리학, 전자기학, 농업정책과 기술, 기계 일반 등 당시까지 중국에 전달된 과학내의 세분화된 분과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이익이나 홍대용 등 이전 학자들이 예수회 회원들의 제한된 분야의 과학 서적에만 접근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최한기는 이미 동양전교의 주도권을 잡은 개신교의 활발한 중국 내 활동에 힘입어 상당히 세분화된 분야까지 새로운 과학적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영국의 선교 의사였던 흠슨의 의학서들을 바탕으로 한 『신기천협』이나 19세기 중엽의 당대의 최신 천문학설이었던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을 전하고 있는 허셜(John Herschel, 1792~1871)의 『담천』을 바탕으로 한 『성기문화』 같은 책은 전통 천문학 안에 담길 수 없는 새로운 학설을 포함하고 있었다. 왜 최한기는 서양 과학을 그토록 열렬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평생 이를 자기 책에 옮겨놓는 일에만 매달렸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한기의 저술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분과학문의 이름이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한기는 서학서들을 통한 지적 자극을 수용 변용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용어를 통해 기존의 언어를 넘어서는 담론을 구축하고자 시도한다. 기존의 언어적 틀을 넘어서려는 최한기의 시도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용어를 구사하며 특히 학문과 관련해 기계학(器械學), 형률학(刑律學), 측마학(揣摩學, 성리학) 등 다양한 신조어를 창조해내고 있다. 최한기의 저술 안에는 역수학(歷數學), 지구학(地球學), 천문학(天文學), 격물학(格物學), 물류학(物類學), 수학(數學), 기계학(器械學), 기용학(器用學),

제기학(制器學), 종식학(種植學), 정교학(政敎學), 전례학(典禮學), 형률학(刑律學), 선거학(選舉學), 용인학(用人學) 등 35종이 넘는 학(學)의 이름이 등장한다.<sup>16)</sup> 언어의 재구성은 세계의 재구성이며, 세계관의 재편성이다. 이러한 시도는 그가 종래의 용어가 아니라 새로운 용어로, 새로운 사고를 담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자기 관심에 스스로 선택한 개념으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신기천험(身機踐驗)』에서 그는 인체를 표현하면서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신기(身機)라는 말을 사용했고 서양 의학서를 그대로 전제하는 부분에서조차 원래 용어인 전체(全體)<sup>17)</sup>를 대체해 신기로 바꾸어 쓴다. 바노니의 『공제격치』를 바탕으로 한 『운화측험』에서도 역시 자기 서학서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식의 용어로 고쳐쓴다.<sup>18)</sup> 그는 일관되게 서양 과학 이론들을 자기 체계를 증명하는데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는 『성기문화』에서 『담천』을 통해 이해하게 된 뉴턴의 역학을 바탕으로 섭력(만유인력), 섭동 같은 표현을 만들어낸다.<sup>19)</sup>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운화기가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실상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에게 서양 학술을 수용하는 것은 학문적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학술적 체계를 강화하고 보강하는데 외래의 진보된 관점을 채용한 것이다. 그는 서양 과학 지식을 재편집한 것이 아니라 기학이라는 상위 담론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공하고 조작했다.

이러한 시도는 그가 새로운 학문체계로 천명하고 있는 기학의 구조를 어떻게 상상하고 구상했는지를 설명해준다. 그가 분류하고 창안한 학문의 명칭들은 기학의 하위 구조를 이루는 각론 다시 말해 그가 채워나가고자 한 분과 학문들이었다. 기학이 보편학이라면, 혹은 메타 담론이라면 그를 채우는 분과학, 하위의 지식 체계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6) 이현구, 「최한기의 기학과 근대과학」, 『과학사상』30, 범양사, 1999. 77쪽

17) 최한기가 참조한 흠손의 『全體新論』에서는 체를 전체로 표현한다.

18) 이종란, 「『운화측험』과 기학적 세계관」, 최한기, 이종란 역, 『운화측험』 한길사, 2014.

19) 김용현, 「최한기의 자연관」 『동양철학연구』 18집, 1998., 박권수, 「최한기의 천문학 저술과 기원설」 『계간 과학사상』 30호, 1999년 가을호.



기학은 그의 학문의 최대치이면서 또한 가장 미세한 곳까지 규제력을 가진 하나의 이념이다. 그는 전통적 관념이던 기를 리에서 분리하고 실제 작동의 기제로 여겨졌던 음양오행도 제거해버리고<sup>20)</sup>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에 대한 상상을 최대치까지 확장하고 가장 구체적인 차원까지 세분화한다. 운화기가 그가 상상한 최대치의 기라면 목화씨를 제거하는 도구인 풍차(風車)<sup>21)</sup> 같은 기계는 기가 실현된 가장 구체적 단위일 것이다. 최한기는 운화기와 같이 실제로 그 운동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기의 본질을 상정함으로써 기를 형이상학적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서양 이론들을 통해 기가 실제로 작동하고 활동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모든 기계의 작동과 자연 현상의 변화를 일관되게 기의 운화로 파악하고자 했다. 서양 과학은 이 기의 운화를 실질적으로 설명해주고 증거해줄 수 있는 자원이었던 것이다.

최한기는 34세 때인 1836년에 『신기통(神氣通)』과 『추측록(推測錄)』을 저술함으로써 이미 자신의 사상적 체계의 큰 틀을 완성해 놓았다. 이후로 다양한 서학서를 통해 개별 분과를 정리해나가는 한편 49세였던 1851년부터 『인정(人政)』의 편찬을 구상하여 1860년 58세 때 인정을 탈고한다. 1857년 55세 때는 『지구전요(地球典要)』를 저술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풍속과 관습을 소개하였고 기학을 저술을 통해 자기 학문을 완성한다.<sup>22)</sup> 기학은 최한기의 자신에게 부여한 거대한 사상적 과업을 표현하는 말이었고 그는 이 자임에 대한 자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인운화의 기학은 천하 사람들의 견문을 종합하여 귀와 눈으로 삼고 천하 사람들이 경험하고 시험한 것을 통괄하여 법례로 삼으니, 천하 사람들에게 얻어서 천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천하 사람들이 공유하는 학문[天下共學]이지 혼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 천인운화의 기학을 집대

20) 최한기가 장횡거나 서화담 같은 일반적인 주기론자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최한기는 음양오행을 기의 실질적 작동 원리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음양오행을 설정할 경우 도리어 기가 추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1) 『추측록』 권6 「東西取捨」

22) 권오영, 「새로 발굴된 자료를 통해 본 혜강의 기학」, 『혜강 최한기』, 청계, 2000. 53-54쪽

성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달려 있지만 이것을 전파하는 것은 멀고 가까운 곳의 여러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sup>23)</sup>

그는 자신의 기학을 천하의 공학(共學)이라고 여긴다. 그는 신기와 그 활동으로서의 추측으로 대표되는 인식 주체로서의 개인의 구조와 특성, 지향으로부터 운화기로 대표되는 우주적 운동과 변화의 구조와 특성, 지향에 이르는 통합적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를 증거 할 이론과 증거들을 서양 학술에서 찾아 세부를 채워 넣으며 그 전체의 체계를 ‘기학’으로 명명했다.<sup>24)</sup>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학의 전근대적 이념을 실증하기 위해 서구 근대의 과학적 지식들을 활용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한기의 이 기획은 인간학이자 자연학이며, 과학이자 형이상학이었다. 그는 어쩌면 조선이라는 사회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편학’의 창시자일지도 모른다. 물론 형이상학적 구도로부터 실용적 분과까지 포괄하고자 하는 유학-성리학 자체가 일종의 보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한기는 기존의 전통적 보편학에 만족하지 않았다. 최한기는 보다 나

23) 『기학』 권2 然惟天人運化之氣學，合天下人之聞見，以爲耳目，統天下人之驗試，以爲法例，得之於天下之人而傳之于天下之人。是與天下共學，非一人之獨學，集成在於一人，傳致在於遠近諸人。

24) 최한기는 이 과정은 일방적인 서양 학술의 수용이 아니라 동서취사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氣測體義』, 『明南樓隨錄』 ‘중국 성현의 경전(經傳)을 만일 서양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賢知]가 읽는다면 반드시 취하고 버리는 것이 있을 것이며, 서양 성현의 경전을 중국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賢知]가 읽는다면 반드시 취하고 버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취하는 것과 버리는 것을 총괄해서 그 까닭을 분별하면, 취한 것은 천하에 통행하는 도(道)이고, 버린 것은 천하에 통행하는 도가 아닐 것이니, 이것이 곧 중국과 서양의 대강(大綱)의 취사(取捨)이다. 그러므로 천하에 통행하는 것을宗旨(宗旨)로 삼으면, 그 근원이 운화(運化)의 정교(政教)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것은 참으로 취할 만한 것이나, 천하에 통행하는 것을 중지로 삼지 않고 그 나라의 시속(時俗)이 숭상하는 것만 취하면, 천인운화하는 대동의 정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이미 제이(第二義)로 떨어진 것이다. 오직 이 중국과 서양의 대강의 취사라야 반드시 불만 한 공론과 본받을 만한 천도(天道)가 있을 것이다. (中國聖賢經傳，使西國賢知讀之，必有取有捨，西國聖賢經傳，使中國賢知讀之，必有取有捨。統其取捨，辨別其由，所取者，乃天下通行之道，所捨者，非天下通行之道，是則中國西國大綱之取捨，以天下通行爲宗旨，則其源出於運化政教，是真可取也，不以天下通行爲宗旨，而以當國之時俗所尙取之，則非出於天人運化大同之政教，已落第二義也。惟此中西之大綱取捨，必有公論之可觀，天道之效則矣)’

름의 체계와 구도를 가지고 스스로 보편학을 구상하고 이에 ‘기학’이라는 명칭을 스스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자아와 세계를 모두 책임지려는 유학의 이념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이를 새로운 학문적 구상 즉 보편학(Universal science)으로서의 ‘천하의 공학(共學)’에 담고자 했던 것이다. 그를 의식적인 보편학의 기획자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최한기가 자신의 학문을 스스로 보편학의 위치에 세워놓고 분과 학문과 개별적 담론들을 그 안에 구성해 넣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학을 통해 하나의 세계관을 제안하고자 했으며 이 세계관을 담은 체계적 학문의 분과를 구성하고자 했다. 그 학문의 실질적 세부를 만들기 위해 서양 과학 이론을 비롯한 자기 시대의 모든 사상적 자원을 활용한 사람이다. 그의 각론에 대한 평가는 따라서 그의 체계와의 연동과 논리 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최한기가 택한 서양 과학 이론을 그가 개별적으로 활용한 하나의 자원으로 보지 않고 기학과 병렬적 관계에 놓이는 거대 담론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 VI. 최한기를 조망하는 각도: 사건과 시간

보편학이 최한기의 사상적 구도와 전략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이라면 그 안에서 운용되는 시간에 대한 상상력과 구상 역시 메타적 관점에서 논의될 만한 주제다. 최한기는 분명 우주가 영원하며, 이 영원성에서 발현되는 선한 가치가 우주와 인간에 완전히 구축되어 있다는 성리학의 세계관을 뛰어넘는다. 최한기의 세계에 가치의 원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천(天)은 여전히 가치의 원천이다. 그러나 이 가치는 인간이 물리에 따라 직접 경험하고 추측하지 않는 한 인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sup>25)</sup> 인간과 우주는 그 자체로

25) 『推測錄』 권2 「天人有分」 “기질(氣質)의 리(理)는 유행(流行)의 리(理)요, 추측의 리(理)는 스스로 얻은 리(理)이다. 처음에 경험[習]하기 이전에는 단지 이 유행의 리(理) 뿐이고, 경험한 후에야 추측의 리(理)가 있다. 만약 추측의 리(理)가 유행의 리(理)에서 나왔다 하면 괜찮지만 추측의 리(理)가 바로 유행의 리(理)라고 해서는 안 된다. 氣質之理, 流行之理也, 推測之理, 自得之理也. 未有習之初, 只此流行之理, 既有習之後, 乃有推測之理. 若謂推測之理出於流行之理則可, 若謂推測之理即是流行之理則不可”

합일되어 있지 않으며 분명한 구분이 있다. 인간과 우주의 관계는 승순의 과정을 통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념상으로 합치되어 있지 않다.<sup>26)</sup> 그런 맥락에서 최한기가 설정한 개인, 사회, 우주 즉 일신운화, 통민운화, 대기운화의 삼층 구조는 우주와 그 우주 속에 위상을 부여받은 개체라는 수직적 세계상을 해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의 운화 즉 세 단위의 운동 변화는 연속적이거나 점이적이라는 점에서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운동하는 흐름이다.

인간이 태극-리로부터 품수받아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가치인 인의 예지 역시 오직 추측이라는 실천적 과정을 통해 사후에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sup>27)</sup> 인사(人事)의 당위는 천의 차원에서 직관적으로 내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리의 적합성, 사람마다 다른 추측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간은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천을 자신의 경험과 추측을 통해 승순할 뿐이다. 이러한 세계에 본래 내재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루어지기로 예비된 사건 역시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물리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겪은 주체의 추측을 통해 모종의 ‘사건’으로서 온다. 최한기의 기학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데이빗슨식도 아니고 들뢰즈식도 아닌 최한기식의) ‘사건[운화]의 존재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신기-운화는 현실의 경험을 고정된 좌표의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파악하며 매번 위상이 바뀌는 과정을 그 자체로 수용하도록 즉 오직 변화로써 변화를 감당하도록 요구한다.

26) 『推測錄』 권2 「天人有分」 “만약 하늘과 사람의 구분이 없으면 어떤 때는 사람으로 하늘을 기른다 하고, 어떤 때는 하늘로 사람을 기른다고 할 것이니 어떻게 하늘은 스스로 하늘의 함양이 있고 사람은 스스로 사람의 함양이 있는 것을 알겠는가. 천리라 하면서 인사(人事)를 섞으면 순수한 천리가 아니며, 인도라고 하면서 천도를 섞으면 유위(有爲)의 인도가 아니다.(無分於天人, 則或謂以人養天, 或謂以天養人, 何以知天自有天之涵養、人自有人之涵養耳。所云天理, 雜以人事, 則非純澹之天理, 所云人道, 渾於天道, 則非有爲之人道也)”

27) 『推測錄』 권3 「仁義禮知」 “추측(推測)하는 가운데, 자연히 생성(生成)의 인(仁)과 적의(適宜)의 의(義)와 순서(循序)의 예(禮)와 권징(勸懲)의 지(知)가 있게 된다. 다만 이것은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없어진다.(推測之中, 自有生成之仁, 適宜之義, 循序之禮, 勸懲之知, 然操則存捨則亡)”

여기에서 세상의 경영이 일변하는데 이르러, 물산을 만국에 교역하여 통하고 모든 가르침이 천하에 뒤섞이며 육지의 시장이 변하여 바다의 시장이 되고 육전(陸戰)이 변하여 수전이 되었다.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마땅히 변하는 것을 가지고 변한 것을 막아야 하고, 불변하는 것을 가지고 변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sup>28)</sup>

그리고 최한기는 변화에 대응하는 변화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 천명한다. 그는 한 집안이나 국가를 넘어서 천하 전체가 하나로 통회해야 한다고 믿는다.

일통(一統)의 뜻에는 천하를 일통으로 여겨 만세의 통일에 미치는 것이 있고, 한 나라만을 일통으로 여겨 이웃 나라와 먼 나라를 비루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며, 존왕(尊王)의 명분을 일통으로 여겨 사책(史策)의 포폄(褒貶)을 매우 엄하게 하되 형질의 조치에는 무관한 것이 있고, 한 집안을 일통으로 여겨 친척과 종족(宗族)이 돈독하게 되는 것이 있다. 이 4등급의 일통에서 오직 대기(大氣)와 형질(形質)의 일통만이 천하 사람들[生靈]이 만고에 걸쳐 본래 가지고 있는 영역이 되어, 피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으며, 그 나머지 일통들은 다 이를 본받아 이을 뿐이다.<sup>29)</sup>

그는 지금의 눈으로 대단히 순진하고 낭만적인 발상으로 세계를 인식했고 그 세계가 모두 자기 학문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세상에 어찌 대도를 듣고도 감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으며, 운화를 보고도 움아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운수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마음으로 만회하려 하면 실패를 취하는 길이다. 그 운화가 저절로 펼쳐지고 인심이 변화하기를 기다리면 저절로 대세가 따를 것이요, 또 모 든 어진 이들이 돌아와 전일에 반론을 하던 사람과 이의를 품던 사람들이 전에 몰랐던 것을 누우쳐 마치 모든 강물이 바다로 돌아가듯 할 것이다.<sup>30)</sup>

28) 『추측록』 권6 「海舶周通」, 於是人世營濟, 至於一變, 物產交通於萬國, 諸教混融于天下, 陸市變爲海市, 陸戰變爲水戰. 處變之道, 固宜將其變以禦其變, 不宜以不變者禦其變.

29) 『氣測體義』, 「明南樓隨錄」 一統之義, 有以宇內爲一統, 以及於萬世成統者, 有以一國爲一統, 而鄙穢隣國遠邦者, 有以尊王名分爲一統, 切嚴於史策褒貶, 無關於形質措處者, 有以一家爲統, 親戚宗族自成敦睦者. 凡此四等一統, 惟大氣形質之一統, 爲宇內生靈亘萬古所固有之範圍, 不可逃脫, 不可變改, 則其餘一統, 皆因此而模襲.

그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세계 평화에 대한 인식이 순진했고 낭만적이었으며, 결국 현실에의 영향력을 조금도 얻지 못한 채 낡은 책 안의 문자로만 남았다는 자조적 평가는 그의 학문적 시도에 대한 총합적 평가로 적당하지 않다. 그는 학자였고, 학자로서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장 이상적인 이념 안에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헤겔이 꿈꾼 절대 정신처럼, 칸트가 상상한 선협적 종합 명제처럼 그의 운화기도 현실에서의 영향력과 위상이 아니라 기획과 내부의 논리 차원에서 이해되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 기획의 논리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이 바로 시간관이다. 그의 저작에는 다양한 시간 구분이 등장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방금]다. 그는 학문의 기준을 언제나 현재에 둔다. 그는 늦게 태어나 것이 다행이라고까지 말한다.

지구가 둥글다는 한 조목은 예전에는 밝지 않았으나 후세로 오면서 더욱 밝혀진 것이니 예전에 밝지 못하던 것을 밝히는 것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만한 것이 없고, 지금[現今] 마땅히 밝혀야 할 것을 밝히는 것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만한 것이 없다. 예전에 밝지 못하던 것으로 지금의 밝혀진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논할 것이 없으나, 만일 세상 시무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처음 지구가 둥글다는 설을 들은 뒤에 예전에 듣고 의혹했던 것을 많이 해소하고 새로운 것을 얻는 기쁨이 깊어지는 데 이를 것이니, 늦게 태어난 다행(多幸)이 여기에 있다.<sup>31)</sup>

그는 그 어떤 조선 학자보다 현재에 대한 강렬한 자각과 지향을 보여준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4~5천 년의 대기운화(大氣運化)는 조금도 차이가 없으나 사람의 소견은 크게 같지 않았다. 상고시대에는 단지 천도의 변화만을 알아 귀신에 의혹되었다. 중고시대에는 마침내 땅의 도리가 하늘에 응하여

30) 『氣測體義』, 「明南樓隨錄」世豈有聞大道而無所感應者, 見運化而不思遷就者乎. 若不俟其幹運, 徒欲以急躁心挽回, 取敗之道, 待其運化之自臻, 人心之向化, 自有大勢之趨趣, 又有驅納之羣賢, 前日之反論者懷異者, 悔前時之不知, 似衆流之歸海.

31) 『仁政』 권8 「地體」地球一款, 在古不明, 而後來益明, 則明古之不明, 莫如地球, 明今之當明, 又莫如地球. 因古之不明, 毀今之明者, 不須論也, 若有志于世務者, 自初習聞其說, 至於古聞之罷疑多, 新得之悅樂深, 晚生之幸, 惟在于此.

받들어 따른다는 것을 알았으나, 건강부회하는 데 매몰되었다. 근고시대에는 인간의 경험이 조금 넓어져 기가 천지운화의 형질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나, 여전히 기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현재[方今]에 이르러 마침내 기계(器械)를 갖추어 형질의 기를 증험하고 시험하며, 상수(象數)로 인하여(기가) 활동하는 변화를 밝힐 수 있었다.<sup>32)</sup>

최한기는 인간 사회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만 과거를 미화하거나 상찬하거나 복귀하는데 힘을 쏟지 않았다. 그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다산이 외래의 사상적 자원을 통해 경학을 재구성하고 재정의했던 것과는 달리 최한기는 과거를 복권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오직 다가오는 것을 여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 그에게 천지의 운동 변화[운화]는 고정된 좌표가 아니라 오직 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었고 이 변화를 따르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開來]이었다.

마침 혼명(昏明)이 바뀌고 학문이 갈리는 때에, 미래를 여는[開來]하는 정교(政教)는 현재의 운화하는 형질에 의거하여 점차로 닦아나가 천하 사람들이 모두 화평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왕성(往聖)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는 마땅히 오륜(五倫)을 따라 일상의 상도를(日用常行)와 절근(切近)한 사무를 교도(教導)하여, 인도(人道)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과 예절 중에서 본의가 있는 것을 처하는 바에 따라 닦아 밝히고 일에 따라 부식(扶植)하여 만세에 전하도록 해야 한다. 천지(天地)에 대한 논설과 기화(氣化)와 형질에 대한 것은 근세에 밝혀진 것이므로, 중국의 옛 성인이 말한 적이 없다 하여 폐기할 수 없다. 천하 사람들이 즐겨 쓰는 것은 실로 천지의 운화는 때에 따라 마땅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sup>33)</sup>

‘현재’는 보편학으로서의 기학이 현실화되는 방식과 영역을 의미한다.

32) 『雲化測驗』 「古今人言氣」自古及今，四五千年大氣運化，無小差異，人之所見，倍蓰不等。上古只知有天道變化，而疑惑乎鬼神。中古乃知地道應天承順，而埋沒乎傳會。近古人經驗稍廣，始知氣爲天地運化之形質，猶未及乎裁制須用。至于方今，果能設器械，而驗試形質之氣，因象數而闡明活運之化

33) 『氣測體義』，「明南樓隨錄」適昏明之交代，學問之遞運，開來之政教，據今運化形質，漸次修舉，以俟億兆咸和，繼往之承循，當因五倫，教導日用常行，切近事務，人道之不可闕，禮節之有本義，隨處修明，因事扶植，以傳萬世矣。至於談天論地，氣化形質，近世之所明，不可以中國古聖言之所未有廢。此字內億兆之樂取用，是實天地運化隨時有宜也。

‘현재’를 기학의 토대이자 현현으로 여기는 그의 태도는 과거를 온전한 모범이자 복귀해야 할 유일한 표준으로 여기는 유학자들과 다르다. 과거를 극복하고 반성하는 방식을 통해 도래한 현재를 하나의 축으로 삼아 미래를 열고자 하는 그의 강렬한 사상적 의지는 현재의 관점에서 ‘근대적’이라고 명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미래학의 성격을 담고 있다. 그의 기학은 보편 세계에 대한 몽상가적 낙관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몰라도 그 낙관은 보편 세계를 지탱할 수 있는 학문과 그 내부의 이념들을 현재적으로 정초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내용성을 지닌다. 우리의 평가는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VII. 나가며

동아시아에서 서양을 통해 촉발된 근대 지식은 독단적이고 독립적 형태의 모종의 실재로 존재하지 않거나 그런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유한 체계와 가치와 이념이 이미 작동하고 있던 지식장에 들어온 외래 사유는 지적 인자로서 본래의 맥락에서 어느 정도 분리되어 기존의 담론 체계 안에서 다른 생명력과 가치를 얻게 된다.

분명한 것은 최한기가 자기 언어로 자기를 상상하고 구상하며, 타자의 이론을 자기 언어로 바꾸어 자기 체계 안에 도입할 수 있었던 마지막 사상가였다는 점이다. 학술의 언어를 잃으면 세계관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도 그렇지만 이후로 동양과 서양은 각기 다른 이유에서 개별 분과를 포섭하는 거대하고 체계적인 상위 체계, 전체를 포섭하는 보편학에 대한 확신과 기획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연구는 그 징후를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확장되어야 한다.

일련의 연구 경향을 통해 알 수 있듯 서학에 대한 비교 검토 과정 없이 유학의 내적 맥락에서만 최한기 사상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이며, 사상 체계의 내부로 들어갈 통로와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최한기가 참고하고 변용한 서학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없이 오직 저술의 문장만



으로 최한기를 평가하는 것은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를 찾지 못한 채 겉에서 더듬는 형국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학서를 직접 대조 분석하는 최근의 연구 성과들은 의미가 있고 주목할 만하다. 최한기가 실제로 읽고 참조한 서학서와 비교하는 연구들은 최한기를 오직 최한기로만 해석했던 기존의 연구를 뛰어넘어 보다 설득력있는 방식으로 최한기의 사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에도 제한점이 존재한다. 최한기 사상에 접근할 관점이나 어젠다를 설정하지 않은 채 최한기의 철학을 서학서의 내용과 비교하는 것은 그의 학술적 작업을 오직 서양 과학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만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 철학, 유학, 실학 그리고 의학이나 지리학, 천문학 등 과학 분과의 연구 경향 내에서 시도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분과의 시선으로 최한기를 읽고 그 안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배경에서 유학이나 실학의 입장에서 최한기는 동서양을 회통한 최후의 실학자가 되고 과학의 입장에서 그는 서양 과학 이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오독한 실패한 절충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최한기는 성공과 실패라는 평가를 떠맡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양 극단의 한쪽으로 귀속될 수 없는 19세기 한국 지식장의 상징적 존재로서 하나의 다층적인 사상적 주제다. 이제 최한기는 연구 주제로서의 최한기가 아니라 전환기 한국의 지식장을 조망하는 하나의 어젠다로 제안되어야 한다. 최한기를 하나의 어젠다로 내세운다는 것은 최한기로 최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의식, 하나의 철학적 문체와 관점에 접근하는 경로로 최한기의 사상을 이용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그가 뛰어넘은 것, 버린 것, 취한 것, 변용한 것, 비판했지만 답습한 것, 제기했지만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 등 그의 세부를 읽고 전체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경로는 아직도 열려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14. 04. 22.

심사완료일: 2014. 05. 06.

게재확정일: 2014. 05. 07.

**김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원

HK 연구교수

## 참고문헌

### <원전류>

- 崔漢綺, 『明南樓叢書』, 대동문화연구원, 1993  
\_\_\_\_\_, 『明南樓全集』, 여강출판사, 1986  
\_\_\_\_\_, 『增補 明南樓叢書』, 대동문화연구원, 2002  
\_\_\_\_\_, 『국역 기축제의 I』, 민족문화추진회, 1979  
\_\_\_\_\_, 『국역 기축제의 II』, 민족문화추진회, 1980  
\_\_\_\_\_, 『국역 인정 I, II, III, IV』, 민족문화추진회, 1980  
\_\_\_\_\_, 『국역 인정 V, 講官論, 索引』, 민족문화추진회, 1984  
『天主教東傳文獻』. 台北. 學生書局. 1965.  
『天主教東傳文獻續編』전3권. 台北. 學生書局. 1966.  
『天主教東傳文獻三編』전6권. 台北. 學生書局. 1984.  
Nicolas Standaert. Adrian Dudink ed. 『耶穌會羅馬檔案館明清天主教文獻』. 台北. 利氏學社. 2002.  
최한기 지음, 김탁진·강석준 옮김, 『신기통』, 여강, 2004  
프란체스코 삼비아시, 『영언여작』, 김철범, 신창석 공역, 일조각, 2007  
혜강 최한기 지음, 손병욱 역주, 『기학 - 19세기 한 조선인의 우주론』, 통나무, 2004  
최한기, 이종란 역, 『문화추천』

### <단행본>

- 권오영, 『최한기의 학문과 사상연구』, 집문당, 1999  
권오영 외, 『혜강 최한기』, 청계, 2000  
김선희, 『마테오 리치와 주희, 그리고 정약용』 심산, 2012  
김용욱, 『혜강 최한기와 유교』, 통나무, 2004  
노혜정, 『지구전요에 나타난 최한기의 지리사상』, 한국학술정보, 2005

- 박희병, 『문화와 근대』, 돌베개, 2003  
 서옥수, 『혜강 최한기의 세계인식』, 소강, 2005  
 야규 마코토, 『최한기 기학 연구』 경인문화사, 2008  
 이용범, 『중세 서양과학의 조선 전래』, 동국대출판부, 1988  
 이종란, 『최한기의 문화와 윤리』, 문사철, 2008  
 이현구, 『최한기의 기철학과 서양과학』,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채석용, 『최한기의 사회철학』, 한국학술정보, 2008  
 최영진 외, 『조선말 실학자 최한기의 철학과 사상』, 철학과현실사, 2000

<논문류>

- 권오영, 「惠岡 崔漢綺의 學問과 思想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4  
 \_\_\_\_\_, 「혜강 최한기의 과학사상」, 『국사관 논총』63, 국사편찬위원회, 1995  
 \_\_\_\_\_, 「최한기의 생애와 학문편력」, 『동양철학연구』18, 동양철학연구회, 1998  
 금장태, 「혜강 최한기 철학의 근대적 성격」, 『제3회 국제학술회의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_\_\_\_\_, 「기철학의 전통과 최한기의 철학적 특성」, 『동양학』1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_\_\_\_\_, 「다산과 혜강의 인간 이해; 실학적 인간관의 두 유형」, 『동양학』24,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1994  
 김용현, 「崔漢綺의 西洋科學 受容과 哲學 形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_\_\_\_\_, 「최한기의 자연관」, 『동양철학연구』18, 동양철학연구회, 1998  
 \_\_\_\_\_, 「최한기의 시대인식과 자연학적 인식론」, 『한국학논집』36,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2

- 박성래, 「한국근세의 서구과학수용」, 『동방학지』2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8
- 박종홍, 「최한기의 과학적 철학사상」, 『박종홍전집』V, 형설, 1988  
 (「최한기의 경험주의」, 『아세아연구』8-4(통권 20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5.의 재수록)
- 손병욱, 「혜강 최한기 기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_\_\_\_\_, 「혜강 최한기 기학의 철학적 구조」, 『동양철학연구』18, 동양철학연구회, 1998
- 신원봉, 「惠崗의 氣化의 世界觀과 그 倫理的 含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_\_\_\_\_, 「최한기의 기학 연구: 사상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논문집』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89  
 \_\_\_\_\_, 「최한기의 기학적 윤리관」, 『동양철학연구』18, 동양철학연구회, 1998
- 안영상, 「토미즘과 비교를 통해서 본 혜강 최한기 인식론의 특징」, 『동양철학연구』49집 2007
- 이우성, 「최한기의 가계와 연표」, 『유홍렬박사회갑기념논총』, 1971  
 \_\_\_\_\_, 「최한기의 사회관; 『氣學』과 『人政』의 연계 위에서」, 『동양학』1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8  
 \_\_\_\_\_, 「혜강 최한기의 사회적 처지와 서울생활; 최한기 연구서설의 일단」, 『제4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0
- 이현구, 「기학의 성립과 체계에 관한 연구; 서양 근대과학의 유입과 조선후기 유학의 변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_\_\_\_\_, 「최한기의 기학과 근대과학」, 『과학사상』30, 범양사, 1999  
 \_\_\_\_\_, 「최한기의 서양과학 수용과 그 문화적 함의」, 『한국학논집』36,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2  
 \_\_\_\_\_, 「최한기의 철학적 담론 모색」, 『시대와 철학』3-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2

## ABSTRACT

## A Proposal to Understand ChoiHan-Ki:

## From the Point of View of Modernity and Science

Kim, Seon Hee

Modern knowledge in East Asia, triggered through the Western world, could not be transplanted in an independent and coherent form. Western scholarship, separated from its original context, could only gain new values in the new sphere of scholarship of East Asia with its own values and philosophies. . The study of Choi Han-Ki's reception of Western learning, especially of Western science, should be approached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oposes a way to understand and estimate Choi Han-Ki's philosophy and ideology in relation to Western learning. Within the pre-existing approaches of his philosophy, he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as a pioneering philosopher for his time for introducing and connecting Western ideologies to those of the East. However, on a more precise level of evaluation level, he has been regarded as rather an unsuccessful philosopher who merely introduced isolated information without being equipped with proper intellectual resources and sufficient training to understand Western science. He was called either as a 'scientific philosopher who accepted the modern view of the universe,' or 'a through and through empiricist,' or even 'a heteromorphic camera.'

Yet, Choi Han-Ki as a person grew up during the Confucian Chosen

was not able to understand that the scholarship he accepted was ‘modern science’ and its ideological resources had been evaluated at the level of modernity in the West. Moreover, in the concept of ‘experience’ that he emphasized, the idea of a metaphysical entity that cannot be experienced was also included. Therefore, an evaluation of Choi Han-Ki, who did not have a conscious aspiration for modern science and did not aim to understand and introduce Western modern science itself into the East, may involve labeling him with ‘modernity’ or with an evaluation method that uses the understanding level of Western science as its standard, would only lead to forejudge his strategy and goal from the contemporary point of view. In this context, one proper way to understand his philosophical configuration is to start with the question of why he wanted to introduce Western science.

His attempt to import various Western science might be best evaluated in the light of his configuration for a universal science, ‘Ghi-Hak.’ He attempted in Ghi-Hak to build up one complete view on the world with its systematic subdivisions, utilizing all the ideological resources he could during his time, including Western sciences. Therefore, the evaluation of his philosophical details should be done within the system he aimed to build up as well as the inner connection logic between ideological resources that form the details of the system.

**Keyword:** Choi Han-Ki, Western learning, Western science, Ghi-Hak, Gi-chuk-jae-eui, universal science, empiricism.